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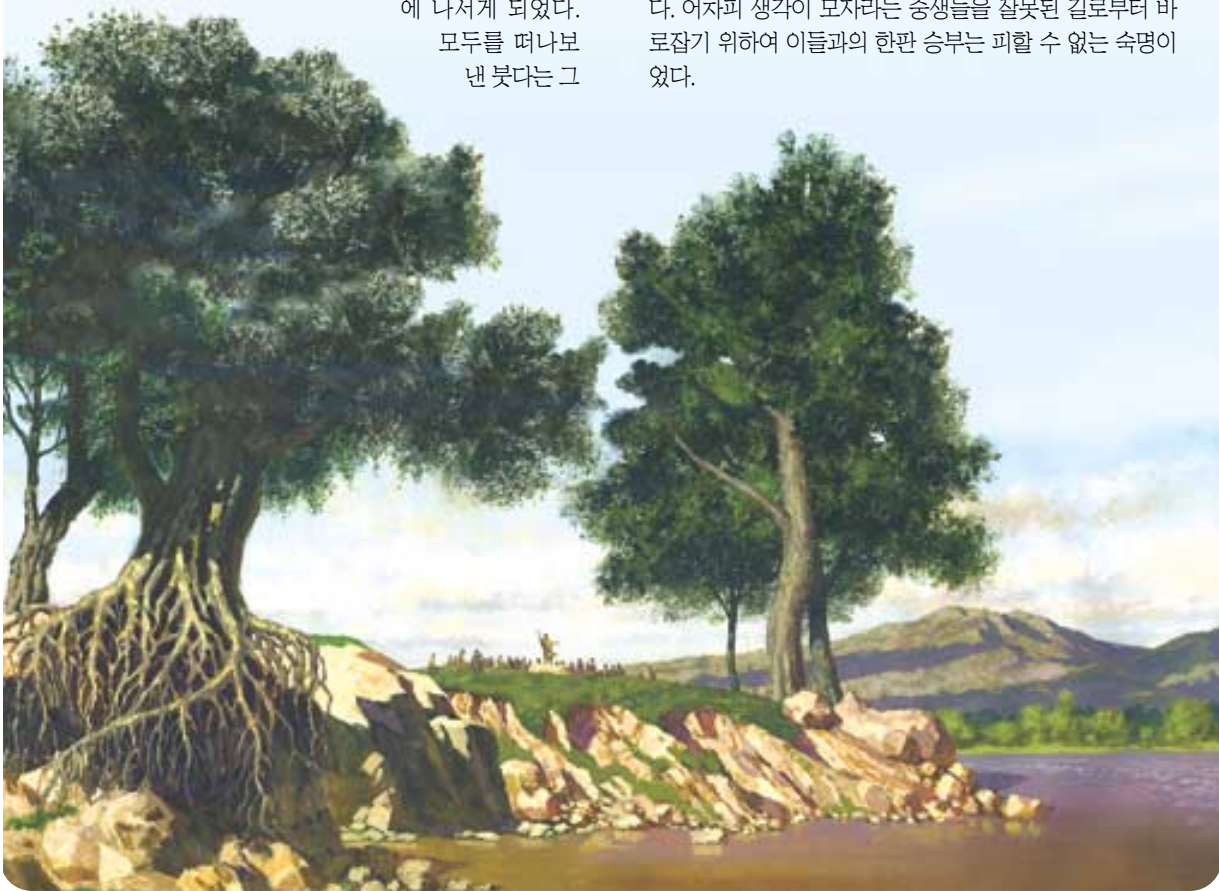
제27화 61명의 아라한



이제 비로소 모든 준비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한 붓다는 61명의 젊고 정력에 넘치는 아라한들을 모아 놓고 뜻밖의 선언을 하게 이른다.

“수행자들이여, 나는 신(神)과 인간들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는 그대들 역시 나와 같이 되었다. 그러나 중생들은 아직도 번뇌의 고통 속에 있다. 이제 그대들은 편력(遍歷)의 길을 떠나야 한다.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 인락을 위해, 세상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 길을 떠나라. 그러나 같은 길을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라. 아라한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내용과 이문이 정연한 법을 설하라. 사람들에게 그대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행 생활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세상에는 때가 많이 묻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때가 털 문은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법(法)을 설하면 쉽게 깨닫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쁜 한 사람의 아라한들이 각각 각 곳을 정하여 본격적인 포교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모두를 떠나보낸 붓다는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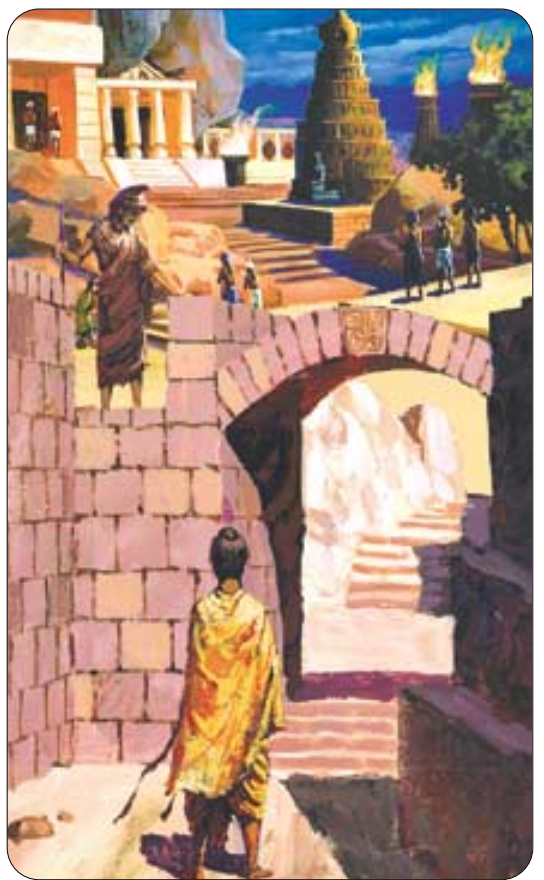


자신이 가야 할 곳을 갠지스 강 마가다국으로 정하고 다시 긴 여행을 시작하였다.

사르나트(Sarnath)의 물가다바(Mrgdava)를 떠난 붓다는 그 당시 인도 최강의 세력을 자랑하던 마가다(Magadha)국에서 최대의 종교 세력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우루빌바 카사파(Uruvilva Kasapa)의 사원을 찾아 가기로 한다. 그곳은 이미 마가다 국왕을 비롯하여 인근 양키국에서 조차 많은 신도들로부터 숭배를 받고 있는 전통적인 바라문교의 불의 신(火神, Agni) 아그니의 대사원이었다.

브라만(Brahman, 婆羅門) 우루빌바 카사파(Uruvilva Kasapa)는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고 그의 아우 나디 카사파(Nadi Kasapa)는 300명, 그리고 막내 동생 가야 카사파(伽伽迦葉, Gaya Kasapa)는 200명의 제자들을 각각 거느리며 막강한 세력을 떨치고 있어서 신종교로 이제 막 그 날개를 펴려는 불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생각이 모자라는 중생들을 잘못된 길로부터 바로잡기 위하여 이들과의 한판 승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이들은 정통 브라만의 혈통으로 크 사트리야(Ksatriya, 왕족, 무사) 출신인 붓다와는 그 출신성분이 달라서 교만하기가 한이 없었다. 매일같이 베다(Rig-Veda) 성전(聖典)을 읽고 성스러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켰다. 화신(火神) 아그니(Agni)에 제사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삼고 있었고 국왕을 비롯한 일반 신자들의 보시를 받아 곁종(吉宗)을 점치는 등 백성들의 살아가는 법에까지 깊숙이 관여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지나가는 사문이요. 곧 날이 어두울 것이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붓다가 니련선하(Nairanjana, 尼連禪河) 강변에 자리잡은 우루빌바 카사파의 사원에 도착한 것은 이미 황혼이 지고 있을 무렵이었다.

“이곳은 성스러운 불의 신 아그니를 모시고 있는 우루빌바 카사파의 사원입니다. 어디서 오신 사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저녁은 특별히 제사를 모셔야 하고, 또 제자들이 모두 사원에 있는 바람에 비어있는 방이 없으니 죄송하지만 사문께서는 다른 곳에서 숙소를 찾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불청객이어서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을 것이니 염려마시고 아무 곳이나 재워주십시오. 그대들의 오늘밤 제사에도 결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있을 것을 약속드리니 너무 걱정 마시고 밤이슬이나 피할 수 있도록 아무 곳이나 잠자리를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참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출가 고행하는 수도승인데 함부로 모실 수도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돌려보내면 우리들을 보고 섭섭히 생각하실 것이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방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곳은 신성한 불을 때는 화당(火堂)이어서 그 안에는 무서운 용(龍, Nagai)이 지키고 있어 사람이 들어오면 독을 뿜어 해치고 맙니다. 만약 용이 있는 방을 드렸다가는 사문께서 화를 입을 것이 분명하데 어찌 그런 위험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나를 보지만 하여도 미리부터 공포에 떨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내뿜는 독에 이내 목숨을 잃고 말았지. 그러나 이 사문은 나를 무슨 지렁이나 되는 듯 무시하고 있으므로 나의 독은 이 사문을 이길 수가 없다.”

독룡은 오히려 붓다의 무심한 태도에 겁을 먹고 있었다. 그때 붓다의 두 눈이 광채를 뿜으며 독룡을 쏘아보자 이미 겁에 질렸던 독룡은 단숨에 기를 빼앗기며 정신이 아득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한편 기를 빼앗긴 독룡은 그 모습 또한 처참하게 쭈그러들며 쓰러지고 말았다. 이미 삶과 죽음의 경지를 초월하고 있는 붓다에게 이따위 독룡의 위협이 무슨 소용이 있었으랴.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듯이 독룡은 기를 제압당하고 보니 두 번 다시 도전할 힘을 잃고 모든 기력이 쇠진하여 조용히 바닥에 엎드리어 붓다의 자비만 빌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우루빌바 카사파는 언제나 해오던 것처럼 이날도 아침 일찍 불의 신 아그니에게 아침의 경배를 올리고 몇 명의 제자들에게 베다 서언의 참 뜻을 강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심술로 인하여 공연히 죄 없는 한 사문(沙門)을 희생시켰다하여 심한 죄책감에 잠겨 있었다.

“물론 그 떠도는 고행승(苦行僧)의 잘못이다. 나는 몇 번이고 그 화당(火堂)에는 독룡이 있고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올 수 없다고 경고해 주었는데도 그 겁 없는 사문은 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곳에 들어간 것이다. 이 세상에 그 독룡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우루빌바 카사파 단 한사람뿐이다. 나와 같이 높은 수행을 쌓은 후에야 이처럼 불을 다룰 수 있고 용의 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아

직 고행승인 그 사문을 화당에 보내 죽게 하고 말았다. 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오늘 오후에는 양을 잡아 피를 뿌리더 신께 나의 잘못을 빌고 또 죄 없이 죽게 된 그 이름모를 사문의 명복도 빌어주자. 너희들도 어젯밤의 일을 교훈으로 삼고 내가 가르치는 법(法)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서 그 사문처럼 쓸데없는 회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자, 비록 후회해도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 사문의 시체를 거두어 화장이라도 해주어야겠다. 모두들 따라 오나라.”

이때 우루빌바 카사파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 어제는 어디서 왔는지 신분이 불투명한 떠돌이 고행승이 갑이 사원의 큰 브라만인 자신을 몰라보는데 기분이 상했고 또 자신의 경고를 끝내 무시하는 행동에 기분이 나빠져서 이름도 모르는 고행승을 독룡(毒龍)의 희생물이 되게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확실히 경솔한 행동이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아라한(Arhan)은 자기 한사람뿐이라고 강력히 믿고 있는 카사파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의심하는데 그만 기분이 상하여 상대방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말았다. 그러나 그 역시 오랜 고행승의 시절을 보냈었다. 그는 불같은 감정이 식어지면 곧 이성을 찾게 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아는 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제가 이미 경고한 바 있으므로 오늘밤에 화룡의 독에 맞아 해를 입는다 해도 결코 나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용은 우리 바라문교의 신도가 아닌 다른 종파의 사문들은 결코 살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염려놓으십시오. 아무리 사악한 뱀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밤은 이곳에서 하룻 저녁 신세를 지겠습니다.”

화당(火堂)의 문이 닫히고 어두움으로 휩싸이자 붓다는 단정히 결가부좌(結跏趺坐)하고 앉아 곧 삼매에 들었다. 이때 한쪽 구석에서 붓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문

제의 용(毒蛇 코브라)이 붓다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왔다. 용은 입으로 독을 뿜어 이 겁 없는 사문을 단숨에 희생시키려 덤벼들었다. 그러나 독의 위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선정에 빠져 이 무서운 용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

“아, 이 사문은 보통 사문이 아니로구나. 이미 카사파 브라만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경고 받고 있어 잘 알고 있을 텐데 지금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니 도대체 나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붓다는 공격하던 독룡은 그만 기가 질리고 있었다. 붓다의 태연함을 보고 독룡은 계속 생각에 잠긴다.

